



# 실속파의 현명한 선택 '직업전문학교'

지난 10월 1일 치러진 서울시 공무원 채용 시험. 7.9급 공무원 932명을 뽑는 이 시험에 사상 최대 인원인 15만 1150여명이 응시했다. 경쟁률만 무려 162대 1. 이는 서울시의 대입수능시험 응시자인 16만명에 육박하는 숫자라고 한다. 과연 그 누군가의 표현처럼 현대판 '과거시험' 내지 '로또시험'이라고 불릴 만하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힘든 공무원시험 풍경은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난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청년 백수시대. 사상 최악의 실업률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탓인지 전문 기술 습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직에 대한 인력 수요는 그나마 활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직업선택과 이직의 폭이 넓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탓도 크다. 이와 더불어 주목받는 곳이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다. 청소년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직업 기술을 배우길 원하는 이들에게 이곳은 취업난을 타개할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주간 1년 40명, 야간 6개월 40명

## 교육내용

교과사회(교양/특강), 체육보충시간, 기초공학, 산업안전, 출판편집, 레이아웃, 인쇄공학, 전자출판론, 색채학실기, 교과출판디자인전산편집(Quark 편집), 컴퓨터 그래픽 I (포도샵), 컴퓨터 그래픽 II (일러스트레이터), 동영상제작, 홈페이지제작, 사진/제판, 평판인쇄

## 반세기 전통의 시립직업훈련 전문 교육기관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교장 백승준 신부, [www.sevo.or.kr](http://www.sevo.or.kr))는 원래 서울시에서 저소득 시민들과 비진학 청소년, 청·중년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4개 직업훈련기관 중 한 곳이었다. 1953년에 설립된 서울특



졸업생 수료작품(좌)과 사진실 내부(우)

별시립 삼성원이 그 모태다. 이후 1984년 5월에 노동부로부터 서울종합공공직업훈련원으로 승인받았으며 1995년 1월에 지금의 서울특별시립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해 폐교의 위기에 처하자 서울시는 같은 해 3월 한국천주교 살레시오 수도회에 운영을 위탁, 지금까지 3만5천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했다.

195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올해로 52주년을 맞이하는 살레시오 수도회는 청소년 교육, 특히 불우청소년 교육을 전담해 왔는데, 서울과 광주, 대전과 춘천 등에도 살레시오 분원이 있다. 대부분 가난한 동네에 터를 잡고 비진학 청소년들이나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는 현재 출판디자인과, 광고디자인과, 실내디자인과 등 주·야간을 포함해 총 19개의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한해 1100여명을 모집, 취업교육을 하고 있다.

### 정보처리를 위한 포괄적인 인쇄기술 습득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전자출판과에서는 사진술, 인쇄술을 이용하여 기록을 보존 내지 정보처리 하기 위한 포괄적인 인쇄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학과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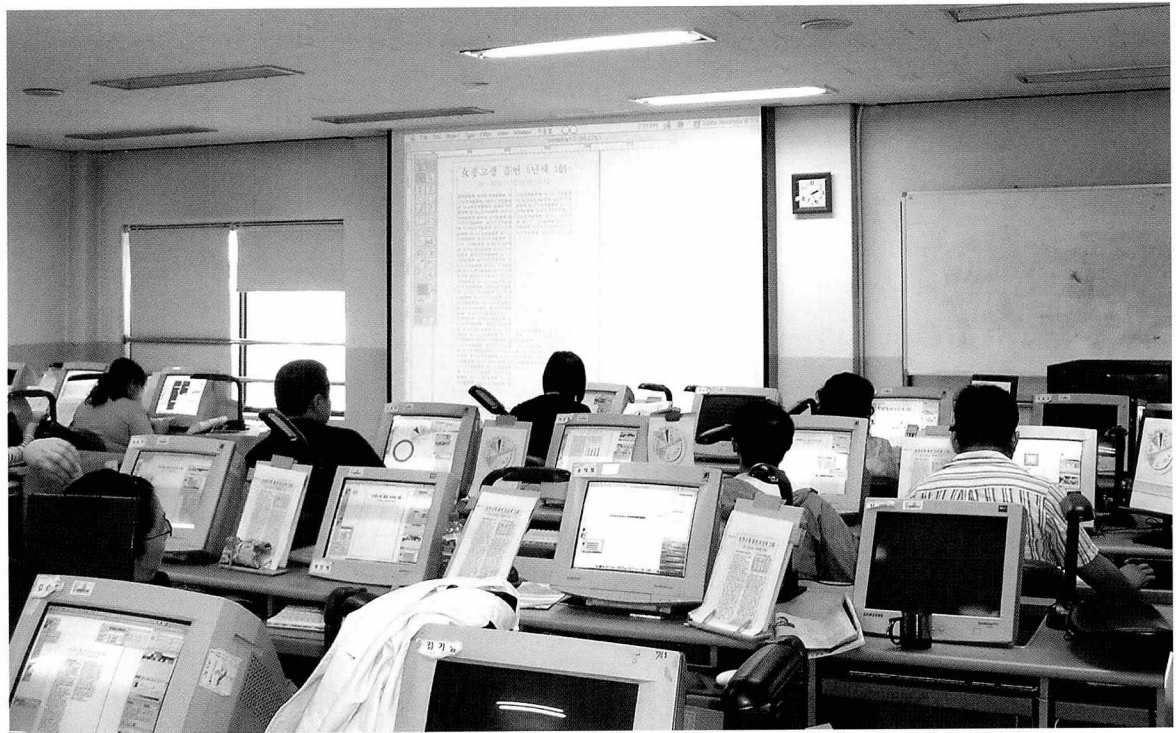
과는 달리 인쇄 교육에도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이곳이 인쇄과로 처음 문을 열었기 때문. 실제로 맥킨토시 컴퓨터 1인 1대, 레이저프린터기(하이퍼레이저G3), 엠손컬러프린터기(슈퍼A3), 아그파듀오스캔, 제판기, 카메라, 사진암실, 오프셋 인쇄기(하이텔베르그 2도)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양질의 인쇄교육을 진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물론 전자출판과라는 이름에 걸맞게 출판물을 다루는 교육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이용한 출판물 입·출력 방법, 전산편집은 물론 포토샵을 이용한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사진이미지 스캔, 촬영, 현상, 인화 등을 두루 연마하고 이를 CD출판물로 제작하기도 한다.

### 담임제 방식의 철저한 학교식 수업

전자출판과의 정원은 주·야간 각각 40명. 주간은 1일 7시간, 야간의 경우 1일 4시간의 수업이 진행된다. 모든 수업은 5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다른과도 마찬가지지만 전자출판과는 담임제다. 그만큼 학생과 이들에 대한 성적관리가 철저하다.

이곳은 일반학교에서는 보기 힘든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10대 청소년과 50대 중장년층이 한 교실



에서 함께 수업을 받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만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남녀라면 입학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윤호열 학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10대에서 20대 초중반까지는 사회 초년병으로서의 준비를 위해 기술을 배우는 경우고, 나이가 많은 학생의 경우는 이직을 원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최근의 불안정한 고용 추세 때문인지 입학생들의 연령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라고. 지원자들의 학력도 점차 고학력화 되어 가고 있다. 입학생의 30% 이상이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윤호열 학과장은 “입학동기를 물어보면 학벌만 가지고는 취업난을 뚫기 어렵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를 휴학하고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도 있다”고 덧붙였다.

#### 무료 교육, 높은 취업률이 매력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교

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수강료, 실습비, 재료비, 교재비 등 교육훈련비 전액이 서울시에서 지원된다.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영대상자는 교육기간 중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또한 국가기술자격검정 기능사에 응시할 경우 이론시험이 면제된다.(1년 과정)

취업 또한 거의 확실하다. 살레시오 수도회가 운영을 맡은 이후 취업률은 매년 80%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전자출판과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높은 취업률을 이어 오고 있다.

교육기간중 전자출판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 평판인쇄기능사 등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수료후에는 신문사, 출판사, 출력소, 인쇄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위탁교육도 실시중이다. 서울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가운데 학교장의 추천서와 입학원서를 제출한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학과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 취업생 및 산업체 사후관리 철저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과는 전자출판과 학생들에게 든든한 지원군과 같은 존재다. 이곳에서는 취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현황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현장 전문가 특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취업준비교육을 실시한다. 신규 산학협력체를 개발하고 취업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취업정보과의 주요 업무중 하나다.

이 곳이 학생들의 신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생을 가르쳐서 내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수료 후 약 6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취업 알선에서 직장생활 상담까지 수료생이 직장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일종의 교육서비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입학을 하면 보통 3개월 이내에 학생들에 대한 개인면담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취업에 대한 개인

성향을 조사하고 관련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직업상담을 통해 희망업체 및 직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습득하고 인성교육 및 현장실습과 같은 취업 실무교육도 받게 된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취업개인신상 메뉴에 저장해 취업을 알선하거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한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직업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만15세 이상 55세 이하의 남,녀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서울 시민이어야 한다. 모집시기는 1년 과정의 경우 연1회(1월~2월 모집), 6개월 과정의 경우 연2회(1월~2월, 7월~8월 모집)이며, 지원자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www.sevo.or.kr](http://www.sev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mailto:kcw@print.or.kr)

윤호열  
전자출판과  
학과장

## “취업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중요”

###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입학자격은 15세~55세 사이의 남녀에게 주어지지만 학과의 특성상 30대 중반 이상은 극히 드뭅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수료 후의 취업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수요 업체들이 그렇지만 특히 전자출판쪽은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보일러과와 같이 기계를 다루는 학과의 경우는 그래도 40~50대 수료생들의 취업이 비교적 수월한 편이죠.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전자출판과에 지원할 경우에는 창업이나 영업분야로 진출을 권유하는 편입니다.

###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갈수록 지원자의 연령과 학력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 정말 사상최대의 취업난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쌓아야 합니다.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와 같은 무료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기술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전하고 희망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